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6. 08. (월)

## 조달청,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맞춤형서비스 23여개 현장 대상 침수·붕괴 방지 및 근로자 안전 집중 확인”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장마철 및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2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인 23개 건설 현장의 ‘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관리중인 전국23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달청 직원을 비롯해 산업안전관리공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시공사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기습 폭우가 잦아진 만큼, 침수나 토사 유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요인을 집중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 침사지(토사 가라앉힘 시설), 하수관로 등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용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 비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비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비탈면(절·성토지), 흙막이 등 가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 발판, 낙하물 방지망의 결속 상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우기 콘크리트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해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근로자 쉼터 조성 및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

고, 붕괴 위험 등 중대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완벽한 안전조치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은 폭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 근로자는 물론 현장 주변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원종현 (042-724-7401)
		담당자	사무관	이재학 (042-724-7053)

